

## 청소년의 신체접촉 양상에 대한 인식과 경험실태, 성지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박 신 애\* · 왕 명 자\* · 차 남 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 개인의 삶에 있어 청소년기의 성(性)적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그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 성가치관, 행위 유형들을 답습하기도 하지만 자신들만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그리고 행동특성들을 형성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성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성(sexuality)과 관련된 인식이나 태도, 행동규범 등의 문화를 습득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Kim, 2003).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 지식 및 행태, 그리고 자아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부정적 성 행동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성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성태도 및 행동을 위한 적극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 청소년의 성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성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연구(Kim, 2000; Oh, 2003), 성 문화(Cho, 2003), 성 실태(Ahn, 1999),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Park & Lim, 2003), 청소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Lee & Kim, 2001) 등이 있으나, 여자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지식수준과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것은 거의 없고 외국의 경우, 임신과 성교에 초점을 맞춘 성교육 및 성태도(Larsson, Eurenus, Westerling & Tyden, 2004), 성병에 대한 지식, 태도(Gokengin, et al., 2003)와 피임약 선택을 위한 비교(Say & Mansour, 2004) 등의 논문이 대부분이며 성문화에 비교적 엄격한 한국적 정서와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성(性) 정서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성과의 신체접촉 양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신체접촉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성에 대한 지식수준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 1) 청소년의 이성과의 신체접촉 및 인식양상을 조사한다
- 2) 청소년의 이성과의 신체접촉 경험실태를 파악한다.
- 3)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용어 정의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yeoreo@kaya.ac.kr)

## 1) 성 지식

성에 관한 명료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 배우거나 연구하여 알고 있는 내용, 또는 범위를 말하며 (Dusan Great Encyclopedia, 2004), 본 연구에서는 Park(1997)의 가족계획 방법의 사용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한 20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자아 존중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Wells & Marwell, 1976),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에 옳게 답한 경우 1점, 그른 답을 한 경우 0점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 최소 0점에서 최고 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649$ 이었다.

## 2) 자아 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10개 문항 5점 척도로 부정적 질문과 긍정적 질문이 각각 5개 문항씩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 최소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2$  였고, Jeon(1974)이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시는 Chronbach's  $\alpha = .6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876$  이었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 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성과의 신체접촉 양상에 대한 인식, 성 접촉 경험 실태 및 성 지식 정도와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지역 소재 4개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여학생 391명, 남학생 394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학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후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각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설문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자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성 지식

Park(1997)의 가족계획 방법의 사용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 대학 부설 가족계획실에서 다년간 자연가족계획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 3인과 K 대학 2인 교수의 검토를 통해 20문항으로 구성된 도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일반적, 성적 특성들은 서술 통계를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변수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후검정은 Dunnett's T3를 이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여학생 평균 연령은  $16.87 \pm 1.17$  세,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16.64 \pm .75$ 세이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42.7%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32.1%), 불교(14.4%), 천주교(6.6%) 순이었다. 대부분 부모와 성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75.7%가 응답을 하였으며, 부모와 성에 대한 대체로 논의를 하는 학생은 24.3%에 불과하였다(Table 1).

## 2. 이성과의 신체접촉 양상에 대한 인식

연구 대상자가 중복응답한 이성과의 신체접촉 양상에 대한 인식표현은 <Table 2>와 같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정의 표현은 어깨동무(33.0%), 손잡기(26.8%), 팔짱끼기(22.7%) 순이었다. 즉, 다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785)

Characteristic	Category	n	%
Gender	Male	394	50.2
	Female	391	49.8
Age(year)	15	64	8.2
	16	286	36.4
	17	229	29.2
	18	183	23.3
	19	23	2.9
Religion	Catholicism	52	6.6
	Christianity	252	32.1
	Buddhism	113	14.4
	No religion	335	42.7
	Others	33	4.2
Discuss for sex with their parents	Never	399	50.8
	not majority	195	24.9
	Average	136	17.3
	mostly	34	4.3
	Complete	21	2.7

응답으로 확인한 여학생의 우정표현은 주로 어깨동무(91.6%), 손잡기(85.2%), 팔짱끼기(82.1%) 순에 대부분 응답하였으며, 포옹이나 뽀뽀, 가슴만지기, 키스도 우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남녀간의 우정표현은 주로 어깨동무(71.6%), 손잡기(47.5%), 팔짱끼기(30.2%), 포옹(28.4%)이었으며, 특이한 것은 소수의 학생응답에서 임신, 성교, 성기만지기도 우정의 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4.6%). 또한, 여학생은 어깨동무, 손잡기, 팔짱끼기 등에 80% 이상의 학생이 우정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비해, 남학생은 절반이상이 우정표현이라고 인정한 것은 어깨동무 뿐이었다.

청소년들이 애정의 표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뽀뽀(28.2%), 키스(25.1%), 포옹(20.4%)이었다. 즉,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애정의 주된 표현은 여학생이 뽀뽀

<Table 2> Expressional Pattern related to Physical Touch

Characteristic	Variable	Total(N=785)		Male(n=394)		Female(n=391)	
		n(%)*	Σ=%	n(%)*	Σ=%	n(%)*	Σ=%
Friendship expression	Shoulder and shoulder	640(81.5)	33.0	282(71.6)	37.4	358(91.6)	30.3
	Hand and hand	520(66.2)	26.8	187(47.5)	24.8	333(85.2)	28.2
	Arm and arm	440(56.1)	22.7	119(30.2)	15.8	321(82.1)	27.1
	Hug	258(32.9)	13.3	112(28.4)	14.9	146(37.3)	12.3
	Light Kiss	36( 4.6)	1.9	13( 3.3)	1.7	23( 5.9)	1.9
	Caress of breast	10( 1.3)	.6	9( 2.3)	1.2	1( .3)	.1
	Deep kiss	15( 1.9)	.8	14( 3.6)	1.9	1( .3)	.1
	Pregnancy	9( 1.1)	.5	9( 2.3)	1.2	-	-
	Coitus	5( .6)	.3	5( 1.3)	.6	-	-
	Caress of genitals	4( .5)	.2	4( 1.0)	.5	-	-
Love expression	Light Kiss	607(77.3)	28.2	216(54.8)	23.9	391(100.0)	31.2
	Deep kiss	542(69.0)	25.1	194(49.2)	21.5	348( 89.0)	27.8
	Hug	440(56.1)	20.4	184(46.7)	20.4	256( 65.5)	20.5
	Arm and arm	193(24.6)	9.0	112(28.4)	12.4	81( 20.7)	6.5
	Hand and hand	149(19.0)	6.9	84(21.3)	9.3	65( 16.6)	5.2
	Caress of breast	97(12.4)	4.5	39( 9.9)	4.3	58( 14.8)	4.6
	Shoulder and shoulder	75( 9.6)	3.5	37( 9.4)	4.1	38( 9.7)	3.0
	Caress of genitals	25( 3.2)	1.2	18( 4.6)	2.0	7( 1.8)	.6
	Pregnancy	9( 1.1)	.4	4( 1.0)	.4	5( 1.3)	.4
Coitus	18( 2.3)	.8	15( 3.8)	1.7	3( .8)	.2	
Expression of sexual relationship	Coitus	620(79.0)	24.7	245(62.2)	24.0	375( 95.9)	25.1
	Pregnancy	584(74.4)	23.2	212(53.8)	20.7	372( 95.1)	24.9
	Caress of genitals	579(73.8)	23.0	214(54.3)	20.9	365( 93.4)	24.5
	Caress of breast	547(69.7)	21.7	212(53.8)	20.7	335( 85.7)	22.4
	Deep kiss	116(14.8)	4.6	78(19.8)	7.6	38( 9.7)	2.5
	Light Kiss	27( 3.4)	1.1	21( 5.3)	2.0	6( 1.5)	.4
	Arm and arm	8( 1.0)	.3	7( 1.8)	.7	1( .3)	.1
	Hand and hand	16( 2.0)	.6	15( 3.8)	1.5	1( .3)	.1
	Shoulder and shoulder	10( 1.3)	.4	10( 2.5)	1.0	-	-
	Hug	9( 1.1)	.4	9( 2.3)	.9	-	-

\* Double response

(100.0%), 키스(89.0%), 포옹(65.5%)이라고 절반이 넘는 다수가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뽀뽀(54.8%), 키스(49.2%), 포옹(46.7%) 중 50% 이상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항목은 뽀뽀이었다. 또한, 손잡기, 팔짱끼기, 어깨동무 하는 소극적 표현을 애정이라고 답한 여학생이 47%, 남학생이 59.1%이었다.

연구 대상자가 성관계로 인식하는 표현으로는 성교(24.7%), 임신(23.2%), 성기만지기(23.0%), 가슴만지기(21.7%) 순이었다. 다중응답을 통해 확인한 바, 여학생이 성교(95.9%)와 임신(95.1%), 성기(93.4%)와 가슴(85.7%) 만지기 순이라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성교(62.2%), 성기만지기(54.3%), 임신(53.8%)과 가슴만지기(53.8%) 순이라고 응답함으로 남녀간 인식하는 성관계 인식순위는 비슷하였으나, 여학생의 응답률보다 남학생의 응답률이 대체로 낮았다. 또한, 손잡고 팔짱끼는 것도 성관계라고 응답한 여학생이 소수 있는 반면(.6%), 남학생은 손잡고 팔짱끼는 것 외에 어깨잡기, 포옹하기도 성관계라고 인식한다는 소수의 응답이 있었다(10.4%).

### 3. 이성과의 신체접촉 경험 실태

청소년들이 경험한 이성과의 경험은 손잡기(20.2%), 어깨동무(16.9%), 팔짱끼기(16.4%), 포옹(14.5%), 뽀뽀(11.4%) 순이었다.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바, 남녀별 주된 순위 및 응답률은 비슷하였다. 즉, 손잡기는 남학생 73.6%, 여학생 80.8%, 어깨동무는 남학생 60.4%, 여학생 68.5%, 팔짱끼기는 남학생 57.6%, 여학생 67.8%, 포옹은 남학생 53.3%, 여학생 57.0%, 뽀뽀는 남학생 50.0%, 여학생 37.9% 순이었다. 한편,

여학생이 성교(.5%), 임신(.3%)한 경험률에 비해, 남학생은 성교23.6%, 임신 5.8%라고 답해 성별 차이를 보였다. 가슴만지고 성기만지기 경험은 여학생이 4.6%인데 반해, 남학생은 57.3%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성경험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로 성병감염 원치 않음(11.9%), 임신하고 싶지 않음(11.8%), 부모님 실망 원치 않음(11.0%), 마음 편한 행동 아님(10.2%) 순이었다. 다중응답 결과, 남학생은 성병 감염 원치 않음(88.1%), 원치 않는 임신하고 싶지 않음(82.5%), 부모님 실망 원치 않음(77.2%), 이용당하고 싶지 않음(65.2%), 마음 편한 행동 아님(65.0%),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함(60.2%), 준비가 안됨(57.9%) 순이었고, 여학생은 원치 않는 임신하고 싶지 않음(93.1%), 성병 감염 원치 않음(90.3%), 준비가 안 됨(88.5%), 마음 편한 행동 아님(87.5%), 부모님 실망 원치 않음(86.5%), 이용당하고 싶지 않음(82.4%)순이었다. 남녀 학생의 항목별 응답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은 임신과 성병의 두려움과 준비가 안 되고 마음 편한하지 않다고 주로 응답한데 비해, 남학생은 성병과 임신의 두려움과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응답 순위가 높았다(Table 4).

### 4. 성 지식 정도

여학생들의 성 지식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위는 남녀 간에는 성 심리 차이가 있다(M=.96), 피임을 해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M=.94), 콘돔의 사용은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M=.90), 월경주기 중 가임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배란시기와 난자와 정자의 생존기

<Table 3> Experiences of physical touch with opposite gender

Variable	Total(N=785)		Male(n=394)		Female(n=391)	
	n(%)*	Σ=%	n(%)*	Σ=%	n(%)*	Σ=%
Hand and hand	606(76.8)	20.2	290(73.6)	17.5	316(80.8)	23.7
Shoulder and shoulder	506(64.5)	16.9	238(60.4)	14.3	268(68.5)	20.1
Arm and arm	492(62.7)	16.4	227(57.6)	13.7	265(67.8)	19.9
Hug	433(55.2)	14.5	210(53.3)	12.7	223(57.0)	16.7
Light Kiss	341(43.4)	11.4	193(50.0)	11.6	148(37.9)	11.1
Deep kiss	253(32.2)	8.5	159(40.4)	9.6	94(24.0)	7.0
Caress of breast	141(18.0)	4.7	127(32.2)	7.6	14( 3.6)	1.0
Caress of genitals	103(13.1)	3.4	99(25.1)	6.0	4( 1.0)	.3
Pregnancy	24( 3.1)	.8	23( 5.8)	1.4	1( .3)	.1
Coitus	95(12.1)	3.2	93(23.6)	5.6	2( .5)	.1

\* Double response

<Table 4> Reason of Abstention on Sexual Experience

Variable	Total(N=785)		Male(n=394)		Female(n=391)	
	n(%)*	Σ=%	n(%)*	Σ=%	n(%)*	Σ=%
Not to wishing of wanted pregnancy	689(87.8)	11.8	325(82.5)	12.2	364(93.1)	11.4
Unwanted venereal disease infection	700(89.2)	11.9	347(88.1)	13.0	353(90.3)	11.1
Not prepared	574(73.1)	9.8	228(57.9)	8.6	346(88.5)	10.8
Not conscient behavior	598(76.2)	10.2	256(65.0)	9.6	342(87.5)	10.7
Not to wishing of making their parents	642(81.8)	11.0	304(77.2)	11.4	338(86.5)	10.6
Not to wishing of wanted use	579(73.8)	9.9	257(65.2)	9.7	322(82.4)	10.1
No wisdom	486(61.9)	8.3	198(50.3)	7.4	288(73.7)	9.0
Not found a partner	524(66.8)	8.9	237(60.2)	8.9	287(73.4)	9.0
No chance	469(59.7)	8.0	220(55.8)	8.3	249(63.7)	7.8
No moral action	450(57.3)	7.7	203(51.5)	7.6	247(63.2)	7.7
Opposite with their religion faith	145(18.5)	2.5	88(22.3)	3.3	57(14.6)	1.8

\* Double response

<Table 5> Knowledge of Sex

(N=785)

Content	Female(n=391)	Male(n=394)
	Mean±SD	Mean±SD
1. The most important organ is brain in control of sexual desire.	.56±.50	.75±.50
2. During conception, mucus is secreted from cervical canal.	.71±.45	.61±.49
3. Elements that decide the conception during menstrual cycle are ovulation time and life span of ova and sperms.	.84±.37	.73±.44
4.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survival of sperms and the secretion of mucus.	.76±.43	.59±.49
5. There is difference in psychology of sex between men and women.	.96±.20	.84±.37
6. I know evoke potential factors of erection.	.48±.50	.65±.48
7. I know the meaning of coitus before marriage for the partner.	.58±.49	.58±.50
8. I know the meaning of coitus before marriage for me.	.70±.46	.56±.50
9. I know that I become emotionally sensitive along with the cycle of hormonal secretion.	.69±.46	.59±.49
10. The purpose of coitus between men and women is for procreation and mutual love.	.83±.38	.74±.44
11. I can apply a natural method for planning and preventing of pregnancy. (Billing's Method of Ovulation, method of temperature with symptoms)	.39±.49	.45±.50
12. I know artificial contraceptive measurement (pills, condom) for planning and preventing of pregnancy.	.78±.42	.76±.43
13. Pregnancy is possible, during menstruation.	.54±.50	.56±.50
14. There are occasions of pregnancy during contraception.	.94±.24	.71±.46
15. Fertilization period is about three days after ovulation.	.61±.49	.68±.71
16. Sperms live about 48 hours in cervix.	.27±.45	.37±.48
17. Extra-vaginal ejaculation of men makes no pregnancy.	.50±.50	.46±.50
18. Use of condom is a method of preventing venereal disease.	.90±.30	.81±.40
19. Sexual fulfillment without waiting for good sexual relationship is bad for both.	.58±.49	.56±.50
20. Sexual impulses appear stronger in ovulatory phase during menstruation cycle.	.49±.50	.55±.50
Average Score	.66±.43	.63±.48

간이다(M=.84), 남녀간 성교의 목적은 생명출산과 사랑의 나눔이다(M=.83)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순위는 정자는 자궁 내에서 약 48시간 정도 산다(M=.27), 나는 임신을 계획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자연법(빌링스 배란법, 증상체온법)을 적용할 수 있다(M=.39), 발기유발 요인을 알고 있다(M=.48), 생식력(월경) 주기

중 배란기에 성적충동이 더 심하다(M=.49) 순이었다.

이에 비해, 남학생의 성지식이 높은 문항은 남녀 간에는 성 심리 차이가 있다(M=.84), 콘돔의 사용은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M=.81), 나는 임신을 계획하고 예방해야 할 때 인공피임 법(경구피임약, 콘돔)을 알고 있다.(M=.76), 성욕의 통제 작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은 두뇌이다(M=.75), 남녀간의 성교의 목적은 생명출산과 사랑의 나눔이다(M=.74), 월경주기 중 가임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배란시기와 난자와 정자의 생존기간이다(M=.73) 문항 순이었고, 성지식이 낮은 문항은 정자는 자궁 내에서 약 48시간 정도 산다(M=.37), 나는 임신을 계획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자연법(빌링스 배란법, 증상체온법)을 적용할 수 있다(M=.45), 남성이 질외사정을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M=.46), 생식력(월경) 주기 중 배란기에 성적충동이 더 심하다(M=.55), 좋은 성관계를 기다리지 않고 성적욕구만을 채우면 서로에게 나쁘다(M=.56), 생리 중에도 임신은 가능하다(M=.56), 혼전 성교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M=.56) 순이었다(Table 5).

성에 대한 기본지식 20 문항에 대하여 정답을 1점으로 하여 20점 만점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 여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은 평균 13.07±2.79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35점이었고 남학생은 평균 12.50±3.72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2.50점이었다. 따라서, 여학생의 성지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과 성지식을 분석한 결과,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t=-2.390, p=.017)이었다(Table 6).

5. 자아존중감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t=-15.024, p=.000)과 연령(F=10.200, p=.000), 부모와의 성 논의(F=7.688, p=.000) 여부이었다(Table 7).

IV. 논 의

청소년 시기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시기이며 정체성을 탐색하고 고민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균형 있는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주변의 지지를 받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중요한 일이다(Kim, 2003).

성행위보다는 성행위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국내의 사회적 문화가치와 성(性)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여 청소년들의 임신과 피임, 동성애를 우려하는, 연구접근 방향이 통념적으로 다른 외국 청소년의 연구문헌과 비교하기가 어려우므로,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 문헌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 중 부모와 성에 대한 논의를 보통 이상으로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4.3%로 부모와 성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국 읍면지역 98%의 인터넷 보급률과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높은 이용률(68.2%)(Cho, 2003),

<Table 6> The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of Sex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785)

Characteristic	Category	n	Knowledge of sex	t or F	p
			M±SD		
Gender	Male	394	13.07±2.79	-2.390	.017
	Female	391	12.50±3.72		
Age(year)	15	64	12.76±3.02	1.818	.123
	16	286	12.55±3.25		
	17	229	12.61±3.36		
	18	183	13.29±3.29		
	19	23	14.19±3.54		
Religion	Catholicism	52	12.39±4.12	.989	.413
	Christianity	252	12.93±3.41		
	Buddhism	113	12.64±3.45		
	No religion	335	12.87±3.04		
	Others	33	11.87±3.38		
Discuss for sex with their parents	Never	399	12.64±3.30	.812	.518
	not majority	195	12.97±3.35		
	Average	136	12.85±3.24		
	mostly	34	12.45±3.44		
	Complete	21	13.71±3.52		

<Table 7> The Difference between Self Esteem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785)

Characteristic	Category	n	Self esteem	t or F	p
			M±SD		
Gender	Male	394	30.53±4.97	-15.024	.000
	Female	391	37.19±7.11		
Age(year)	15	64	34.90±7.02a	10.200	.000
	16	286	32.80±6.98a		
	17	229	32.59±5.82ab		
	18	183	36.27±7.50bc		
	19	23	39.32±6.36c		
Religion	Catholicism	52	33.48±6.90	1.103	.354
	Christianity	252	34.22±6.90		
	Buddhism	113	33.50±7.03		
	No religion	335	34.02±6.91		
	Others	33	31.70±8.37		
Discuss for sex with their parents	Never	399	32.54±6.61b	7.688	.000
	not majority	195	34.95±6.62ab		
	Average	136	35.67±6.82ab		
	mostly	34	35.79±6.76a		
	Complete	21	34.00±12.21a		

부모 및 교사의 성교육 및 성태도와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실시간의 빠르고 다양한 정보 획득이나 검색, 각종 자료교류, 친구들 간의 빈번한 대화 가능, 의사교환과 결정, 자기학습 용이 등의 많은 장점을 제공해 주는 반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만족할만한 성지식 제공의 미흡,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대화 부족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사나 부모보다는 다른 정보창구를 활용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친구사이의 정(情)인 남녀간의 우정은 주로 어깨동무(33.0%), 손잡기(26.8%), 팔짱끼기(22.7%) 순이었으며, 사람에 대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느끼는 정서(情緒)표현인 애정표현은 뽀뽀(28.2%), 키스(25.1%), 포옹(20.4%)을 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성관계는 성교(24.7%), 임신(23.2%), 성기만지기(23.0%), 가슴만지기(21.7%) 순이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성과의 우정과 애정, 성관계의 개념을 비교적 잘 구분하고 있었고 남녀간 순위도 비슷하였다. 반면, 질문 개념별 여학생의 응답률보다 남학생의 응답률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개념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학생이 비교적 남학생보다 이성간의 관계에 대한 어휘개념 구별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가 경험한 이성과의 신체접촉 경험으로는 손잡기(남학생 73.6%, 여학생 80.8%)가 가장 많았

는데, 1997년 여성민우회가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의식 실태 조사한 남녀 중고생 모두 이성친구와 손을 잡아본 경험이 가장 많았다(57.2%)는 결과와 1997년의 실태조사 보다도 더 많이 이성과 손잡는 경험을 흔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과의 신체접촉 경험 다음 순으로는 어깨동무(남학생 60.4%, 여학생 68.5%), 팔짱끼기(남학생 57.6%, 여학생 67.8%), 포옹(남학생 53.3%, 여학생 57.0%), 뽀뽀(남학생 50.0%, 여학생 37.9%)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우정과 애정의 표현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 중 포옹과 뽀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험률보다 29.6%가 이성과 포옹과 키스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1997년 실태조사보다 애정 표현이 적극적이며, 이성과의 신체접촉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 중 임신과 성교까지 경험한 청소년은 여학생 .8%(성교 .5%, 임신 .3%)에 비해, 남학생은 성교 23.6%, 임신 5.8%로 남학생이 이성과 성적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성에 대해 여학생보다 허용적임을 나타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교와 임신 경험률이 낮은 것은 성관계 후 부담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성적 접촉보다는 로맨스를 더 원하는 여성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사한 Kim(2003)의 연구에 의하면, 여중생의 성경험은 3.0%, 여고생의 성경험은 7.5%였

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고생은 .4%, 여중생은 .4%이었으며, 성문화연구소(2001)에서는 청소년의 성경험 중 남학생 33.1%, 여학생 13.2%이었음을 보고하였다(Kim, 2003에 인용됨). Yun(200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37.0%, 여학생 24.8%가 성교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2003년 전국 고교생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 센터(2003)의 결과에서는 8.9%의 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임신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4%이었으며(Kim, 2003에 인용됨), Kim(2002)의 조사에서도 성경험 여학생의 10.8%가 임신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십대 여학생 12,7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Jang(2001)의 연구에서 성교를 경험한 사람은 4.5%로 나타났으며 임신경험 유무는 성교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경우 11.4%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성교 및 임신 경험률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표집단위가 편의표출에 의한 소수학교만 조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표집단위가 보강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를 고찰해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이성교제와 우정과 애정적 신체접촉에 대해 다수가 허용적인 사고를 갖고 경험을 하였지만, 성교를 해본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들이 성경험을 절제하는 이유로, 여학생은 임신과 성병의 두려움과 준비가 안 되고, 마음 편안하지 않다고 주로 응답한데 비해, 남학생은 성병과 임신의 두려움과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응답 순위가 높았다. 청소년들이 성적 접촉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임신과 성병문제이었는데, 여학생은 임신의 두려움이 1순위인데 비해, 남학생은 성병의 두려움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은 이성친구와 우정과 애정을 표현하는 신체접촉에는 상당히 허용적인 데 비해, 아직 순결의식, 또는 성 접촉시의 부담감을 더 인식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체접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느끼는 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기기 싫다는 인식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자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함을 나타낸다.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성 지식은 여학생이 평균 13.07±2.79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8.78점이었고 남학생은 평균 12.50±3.72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2.50점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18문항의 성지식을 측정한 Ahn, Jung과 Lee(1997)의 평균 11.36점(100점 만점시 63.11점)과 비교 시 남학생은 비슷하였으나, 여학생은 점수가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성지식은 이성교제, 피임, 월경, 성교 목적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정자의 생존기간, 자연가족계획법, 발기와 성적충동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성 심리, 피임법, 성교목적, 월경주기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정자의 생존기간, 자연피임법, 사정, 성적충동과 욕구, 임신, 혼전성교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자연적인 피임방법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들에 대한 성교육을, 남학생들에게는 임신과 자연피임법, 성적충동과 혼전성교에 대한 성교육을 시행함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검증을 보면, 성지식이 성별( $t=-2.390, p=.017$ ) 정도에 따라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성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도 검증할 수 있다. 사이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Oh(2003)는 청소년의 성지식은 성태도, 성 행동, 성 가치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 태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Yun, 2000; Jung, 2000; Lee, 2001; Bae, 2002)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성지식이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성별에 따른 이성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33.85±6.98점으로 남학생 30.53±4.97, 여학생 37.19±7.11 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연구 대상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67.70점(남학생 61.05점, 여학생 74.38점)이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시행한 Kang(2003)이 보고한 자아존중감 평균점수 37.91점, Lee, Park과 Park, (2001)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 51.06점 보다 높다. 또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은 자아존중감이 성별( $t=-15.024, p=.000$ )과 연령( $F=10.200, p=.000$ ), 부모와의 성 논의( $F=7.688, p=.000$ ) 정도에 따라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보고 듣는 지식과 경험이 증가하면서 주변과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와 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보다는 청소년들이 부모 및 교사와 더불어 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 및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점에서의 대화, 상담능력 및 기술이 필요하며, 연령에 따른 성지식 교육,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성의 신체적 특징과 자연적 피임 등의 지식과 기술교육이 필요하며, 이성과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도록 가족 및 학교에서의 노력 및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성(性)적 태도 및 지식, 행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하며 나아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인으로 성숙케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성과의 신체접촉 양상에 대한 인식, 성 접촉 경험 실태 및 성 지식,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청소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S시, K도에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 남, 여학생 7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인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16.64세( $SD=.75$ ) 여학생 16.87세( $SD=1.17$ )이었으며, 대부분 부모와 성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5.7%).
2.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정표현은 주로 어깨동무(33.0%), 손잡기(26.8%), 팔짱끼기(22.7%) 순이었으며, 애정표현은 뽀뽀(28.2%), 키스(25.1%), 포옹(20.4%)을 주로 생각하고 있었고, 성관계는 성교(24.7%), 임신(23.2%), 성기만지기(23.0%), 가슴만지기(21.7%) 순이었다.
3. 여학생들이 경험한 이성과의 경험으로는 손잡기가 가장 많았고(남학생 73.6%, 여학생 80.8%), 어깨동무(남학생 60.4%, 여학생 68.5%), 팔짱끼기(남학생 57.6%, 여학생 67.8%), 포옹(남학생 53.3%, 57.0%), 뽀뽀(남학생 50.0%, 여학생 37.9%) 순이었다. 한편, 여학생이 성교(.5%), 임신(.3%)한 경험율에 비해, 남학생은 성교 23.6%, 임신 5.8%라고 답해 성별 차이를 보였다.

4. 청소년들의 성 지식은 여학생이 68.78점, 남학생 62.50점이었으며, 성지식이 성별( $t=-2.390$ ,  $p=.017$ ) 정도에 따라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67.70점(남학생 61.05점, 여학생 74.38점)이며, 자아존중감이 성별( $t=-15.024$ ,  $p=.000$ )과 연령( $F=10.200$ ,  $p=.000$ ), 부모와의 성 논의( $F=7.688$ ,  $p=.000$ ) 정도에 따라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정과 애정, 성관계 개념은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며, 경험한 이성에 대한 접촉수준은 우정과 애정수준에 대해 대부분 허용 적이었다. 성 지식수준도 비교적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 시 남학생은 약간 낮았으나 여학생은 높은 편이었으며, 이성에 대한 신체적 특징과 자연피임법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은 성별에, 자아존중감은 성, 연령, 부모와의 성 논의정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에 따른 눈높이 성 교육과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학교 및 가정, 사회적 지원과 격려가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표본의 크기를 보강한 확대연구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인식과 경험실태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정도 및 관계성을 보는 연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연구 등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Ahn, C. S. (1999). A survey on the sexua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Student life study*, 23, 49-95.
- Ahn, Y. S., Jung, H. J., & Lee, J. S. (1997).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sex. *J Korean life scientific study*, 15, 137-154.
- Bae, S. M. (2002). *Effect of sex knowledge and attitude on sex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Cho, S. Y. (2003). Adolescents' internet using hours by their parent rearing methods and attitudes and conversation hours with their parents. *J Korean Studies on Youth Welfare*, 5(2), 47-59.

- Gokengin, D., Yamazhen, T., Ozkaya, D., Aytug, S., Ertem, E., Adra, B., Serter, D. (2003).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risk behaviors of students in Turkey. *J Sch Health*, 73(7), 258-263.
- Dusan Great Encyclopedia (2004). Sex, knowledge. Retrieved Jun 20, 2004, from <http://www.book1472.co.kr>
- Jang, S. B. (2001). A primary factor related to Sex type and sexual experience in teenagers girl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1(5), 921-931.
- Jeon, B. J. (1974). Self-se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Yeonsei J.*, 11, 107-129.
- Jung, E. J. (2000). Effect of sex education program on sex knowledge and attitude in ma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ang, E. S. (2003). Relationship of the purpose in life, spiritual well-being self-concept, self-esteem of adolescence. *Korean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12(3), 245-259.
- Kim, M. K. (2000). *Effect study on Sex attitude and behavior of pornographic in young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Industry intelligence unit academy, Daejeon.
- Kim, S. W. (2003). Teenagers' sex problem and educational countermeasure. *Korean J Sexol*, 67-72.
- Kim, Y. R. (2003). Teenagers' sex. *J Korean Association for Sexology*, 53-66.
- Larsson, M., Eurenus, K., Westerling, R., & Tyden, T. (2004). Evaluation of a sexual education intervention among upp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Sweden. *Eur J Contracept Reprod Health Care*, 9, 34.
- Lee, G. S. (2001). *Comparative study on sex knowledge and attitude in male·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J. E., Park, S. N., & Park, H. R. (2001). The effect of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and family functioning of hope of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7(1), 74-84.
- Lee J. M., & Kim, H. W. (2001).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of school sex-education for teenagers on regarding with the teenagers sexual behaviors and past school sex-education for teenagers. *Korean J Youth Res Assoc*, 8(1), 117-142.
- Oh, D. J. (2003).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youth's sex knowledge·sex behavior and sex value in cyber age. *J Korean Sport and Leisure Studies*, 19, 719-733.
- Park, H. M., & Lim, M. Y. (2003).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using multimedia program o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ex of middle school boy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2), 173-179.
- Park, S. A. (1997). *Culture technology school register research about use experience of natural family planning meth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y, R. E., & Mansour, D. (2004). Contraceptive choice for young people. *Eur J Contracept Reprod Health Care*, 9, 34.
- Wells, L. E., & Marwell, G.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20,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Yun, M. S. (2000). *Educational programs development for early teenagers' healthy se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Abstract -

## A Study on the State of Recognition and Experience of Love, Sex Knowledge, and Self-esteem of Youths

*Park, Shin-Ae\* · Wang, Myoung-Ja\*  
Cha, Nam-Hyun\*\**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ate of recognition and experience on love, sex knowledge and self-esteem in youths who attended middle and high school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785 youths of those schools from Aug. 2004 to Nov. 2004.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through  $\chi^2$ -test and ANOVA. **Result:**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was  $16.87 \pm 1.17$ (girls) and  $16.64 \pm .75$ (boys) years old, and 24.3% of them discussed sex with their parents. The youths' most frequent love experiences showed hand in

hand(boys 73.6%, girls 80.8%), and followed by shoulder in shoulder(boys 60.4%, girls 68.5%), arm in arm(boys 57.6%, girls 67.8%), hug(boys 53.3%, girls 57.0%) and light kiss(boys 50.0%, girls 37.9%). There were differences in sexual experiences between boys and girls: coitus and pregnancy in boys(23.6%, 5.8%) and girls(.5%, .3%). The scores of sex knowledge were 68.78(girls) and 62.50(boys), and self-esteem 61.05(boys) and 74.38(girls). Sex knowledge were related to gender, and self-esteem were related to gender, age, and discussion with their parents regarding sex. **Conclusion:** With the results above, majority of youths were not a hindrance mostly about friendship and love expressions.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school, home, and society are required so that eye-level sex education by age and positive self-esteem may be formed.

**Key words :** Touch, Sex, Knowledge, Self-esteem

---

\*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